

대만 민진당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전망*

文 興 鎬

I. 서론	A. '92공식'의 유지와 대만의 정체성 강화
II. 2016년 대선의 정당별 선거 전략과 결과 분석	B. 양안 경험의 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A. 주요 쟁점과 정당별 전략	C. 국제적 활동 영역의 확대
B. 대선 과정, 결과의 주요 특징	IV. 결론
III.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 전망	

한글초록

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정치관계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92공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면서 대만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차이 정부는 중국과의 다양한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도 민진당을 협상 파트너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일중'(一中)과 '각표'(各表)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하다. 한편 차이 정부는 양안경험의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의 최대 쟁점은 경험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편중 문제였다. 따라서 차이잉원 정부는 양안 경험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교류 성과를 특정 기업이 독식하는 폐단을 시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다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이외에 차이잉원 정부의 대외정책은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양안관계의 고유한 특징은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협력보다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는 미국 등 대외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마찰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교류의 단절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민진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가능성 없는 통일과 독립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생과 공영의 양안관계를 지향할 것이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양안의 집요한 기 싸움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미국의 이중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주제어 : 대만, 총통선거, 차이잉원, 민진당 재집권, 양안관계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2015S1A5A2A03047798)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2016년 대만 대선은 대만의 정치과정과 양안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만의 대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천수이벤(陳水扁) 정부에 이어 두 번째의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00년 천수이벤의 대선 승리는 국민당의 권위주의적 일당 지배체제를 종식시키고 대륙과 구별되는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다면 이번 차이잉원(蔡英文)의 제14대 총통 당선은 천수이벤의 불명예 퇴진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민진당이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민진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전반적인 집정 능력과 지도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당 주리룬(朱利倫) 후보를 300만 표 이상으로 물리치고 재등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의 정치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이번 대만 대선은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천수이벤 정부가 출범 당시의 환호와 지지를 확대 재생산하지 못하고 집권 후반에 지지 기반을 상실한 것은 대만 유권자들의 현실 삶과 직결된 내실보다는 대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정명’(正名), 독립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했기 때문이다. 즉 대만의 자주성 강화에 대한 대만인들의 기대를 무리하게 부풀리고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증대시킴으로써 급격하게 지지기반을 상실했다. 2008년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정부의 집권은 민진당 정부의 무능과 천수이벤 리더십의 부실에 대한 반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당시 마잉주는 양안관계의 안정,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대만의 경제적 도약(光富臺灣)을 구호로 내세웠고 이는 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마잉주 정부의 대륙 친화적인 정책 역시 집권 1기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동력을 상실했으며 결국 10%대의 지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마잉주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실패에 따른 반국민당 정서의 확산은 결국

차이잉원의 대선 승리 원동력이다.

이처럼 1996년 대만의 총통 직선이 실시된 이후 국민당, 민진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양당정치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만의 정체성 및 양안관계와 관련된 대만 사회의 갈등이 국민당, 민진당을 불문하고 각 정권의 집권 후반기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고질적인 한계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양상은 향후 대만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2016년 대만 대선과정의 주요 특징, 민진당이 재집권 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인 배경 요인의 분석을 통해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국민당, 민진당의 주요 정책 공약과 쟁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민진당의 재집권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정책, 양안관계에 대한 차이잉원의 기본 인식과 예상 정책의 분석을 통해 양안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Ⅱ. 2016년 대선의 정당별 선거 전략과 결과 분석

A. 주요 쟁점과 정당별 전략

대만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갈등 요인은 역시 중국 대륙과 대만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대만인들이 겪어왔던 정치·경제·사회적 좌절은 대륙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형태로 잠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의 변화와 양안의 긴밀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외형적으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시 부각된다. 그 중에서도 대선은 대만사회의 내재화된 갈등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대선에서도 대만의 정체성과 정치적 지위, 양안 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국제적 생존 공간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당과 민진당 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반은 결국 대선 결과로 이어졌다.

(1) '92공식'(九二公識)과 '일중각표'(一中各表)

1992년 11월 중국과 대만은 '중국은 하나이고(一中), 하나의 중국 표기는 각각 다르게 한다(各表)'는 데 합의했으며 이를 '92공식'으로 칭한다. 이는 중국과 대만이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교류협력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상호신뢰의 기본 출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대만의 각종 선거에서 각 정당후보들의 쟁론과 여론의 공방을 심화시키는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

2016년 대선에서도 '92공식'에 대한 국민당, 민진당의 입장 차이와 양당 후보의 상호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민당 마잉주 후보와 격론을 벌였던 경험을 살려 과거에 비해 대만의 정체성, 자주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자제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했다.¹⁾ 둘째,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지난 8년간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일중'(一中)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각표'(各表)의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양안관계가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양당관계 즉 '국공화'(國共化)되었다고 비판했다. 셋째, 양안관계가 대만의 여론 추이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변질, 왜곡됨으로써 결국 대학생들이 의회를 점령하고 거리로 나서는 '해바라기' 운동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차이잉원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비해 원론적인 비판을 지양하고 비판의

1) 일례로 차이잉원은 중국과 대만이 상호 소통하고(溝通), 도발하지 않으며(挑釁), 의외의 상황을 조장하지 않는다는(不意外)는 3원칙에 입각하여 양안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蔡浩祥, 管務媛, “蔡英文: 有溝通, 不挑釁, 沒意外 3原則維持兩岸關係穩定,” 『中國時報』, 2015. 12. 22.

강도를 낮추면서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의제를 선점하여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²⁾

한편 주리룬 국민당 후보는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국민당 정부의 대륙정책과 양안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무조건 비판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안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당 정부는 ‘중화민국은 독립 주권국가’라는 헌법 정신에 의거하여 양안관계를 처리했으며 ‘92공식’ 역시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015년 11월 7일 마잉주-시진핑의 싱가포르 회담도 양안의 ‘대등’, ‘존엄’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국민당의 양안정책만이 양안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셋째, 중화민국 헌법에 대한 민진당의 모호한 태도와 적대적, 냉전적, 모험적인 대륙정책은 일종의 투기(投機)로서 양안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³⁾ 주리룬이 강조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진당이 제기하는 양안관계의 대등성과 형평성, 대만 주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대륙정책, 대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동시에 민진당의 정책이 다분히 인기 영합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는 대만 독립과 자주성 회복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킴으로써 양당의 대륙정책을 안정적 현상유지와 모험적 현상타파로 대비시키려는 선거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⁴⁾

(2) 양안 경제교류의 관리 감독과 성과의 균형적 배분

대만의 정체성과 함께 양안의 경제교류 문제는 역대 정권의 진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마잉주 역시 대륙과의 대대적인 경험확대

2) 鄭偉, “蔡英文: 朱立倫提兩岸同屬一中 引發譁然,” 『聯合報』, 2015. 12. 27.

3) 주리룬 국민당 대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 <http://onetaiwan.tumblr.com/post/134261819926/兩岸政策篇>(검색일: 2016.1.9.)

4) 한편 친민당(親民黨)의 송추위(宋楚瑜) 후보는 국민, 민진당의 후보의 양안관련 정책이 모두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務實’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안의 합작을 증진하고 상호 이해, 교류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udn.com/ews/story/1/1404320> (검색일: 2016.1.10.)

를 통한 대만의 경제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많은 지지를 확보했지만 집권 이후 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 국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초래했다.⁵⁾ 따라서 대만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양안경협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자신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양안 경협과 관련된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잉주 집권 8년 동안 대만경제가 과도하게 대륙 의존적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적으로 양안관계가 ‘국공화’된 것처럼 대만의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면서 국가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고 대만기업(臺商)의 투자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양안 경제교류의 양적 확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협의 과정과 성과가 국민당 중심의 일부 특권 계층에 의해 독점되고 결과적으로 ‘매판자본’(買辦資本)이 양안경협을 농단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양안경협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안감독조례’(兩岸監督條例)를 제정하여 경협과정의 ‘투명화’, ‘공개화’를 실현함으로써 경협의 성과, 분배의 왜곡, 독점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 차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의 양안경협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고 일부 국민당 인사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대만의 중소기업, 농어민 등 약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심지어 차이잉원은 각종 양안 교류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의미하는 ‘양광화’(陽光化)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이잉원 후보의 집요한 공세에 맞선 주리룬 국민당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당 정부가 추진해 온 양안 경제교류의 제도화, 법제화는 양안관계 발전의 원동력이며 관리 감독 부실 등의 문제를 보완

5) 2008년 대선 당시 타이베이 시장, 국민당주석 등을 역임하고 폭넓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던 마잉주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적 공약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하나의 중국시장’(one China market) 발전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윈-윈’을 극대화하자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는 경제 제도약을 염원하는 대만 유권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홍호, “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新亞細亞』, 제15권 2호(2008년 여름), pp. 106-107.

하기 위해 ‘양안협업감독조례’를 입법화할 것이다. 둘째, 양안 경제교류의 제정비를 통해 대륙 내 대만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 경제교류의 효율 제고, 교류성과의 균형적 분배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대만경제의 대중국 종속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경험관련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화, 투명화, 다원화를 통해 대만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증진하는 동시에 혜택의 균형적 배분에 주력할 것이다.⁶⁾ 주리론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민진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며 주로 경제교류 과정의 투명성, 성과 배분의 형평성, 대만기업의 권익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리론의 주장은 양안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이외에 경제도약의 묘수가 없다는 마잉주 정부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생존 공간 확대

‘92공식’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정치적 지위는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며 대만 유권자들은 이를 대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다. 이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인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독자적인 정치실체로 존재하는 한 불가피한 문제다.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 없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차이잉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92공식’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입장에서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의미하는 ‘각표’(各表)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원칙과 무관하게 사실상의 독립국가로서 대만의 존재와 지위를 국제사회에 부단히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만이 전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잉주 정부는 지난 8년간 대륙과의 경험에 지나치게 몰입해왔다. 특히 대륙에 많은 양보를 하면서도 RCEP, TPP 등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⁷⁾ 차이잉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대선에 비해 완

6) <http://onetaiwan.tumblr.com/post/134261819926/兩岸政策篇>(검색일: 2016.1.9.); 楊湘鈞, 林克倫, “兩岸政策/學者觀點: 從經濟角度 探未來走向,” 『聯合報』, 2015. 12. 27.

화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대만의 독립적인 국제적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주리론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 신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대만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지역,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각종 협상 과정에서 대만의 국제적 활동 공간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15년 6월 시진핑 베이징 회담시 대만이 체육, 문화, 교육, 의학 분야의 국제 NGO에 가입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더 나아가 WHO, WHO, ICAO 정치적 섹체가 강하지 않은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⁸⁾

B. 대선 과정, 결과의 주요 특징

2016년 대선의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마잉주 국민당 정부에 대한 반감과 지지도 추락으로 선거 1년여 전부터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는 점이다. 역대 대만 대선은 인사, 조직력, 재력의 측면에서 월등한 국민당이 주도하고 민진당이 힘겹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우선 민진당은 2014년 초에 차이잉원을 당 주석으로 영입하고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돌입했다. 반면에 국민당은 마잉주의 지지도가 10%선을 맴도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보 선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진통 끝에 국민당은 민진당의 여성 후보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원 부원장인 홍슈주(洪秀柱)를 후보로 선출했으나 차이에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주리론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혼선을 빚었다. 두 번째의 특징은 기존 대선과 달리

7) 차이잉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1990년대 WTO 담판과정에서 대만의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면서 대만경제가 세계무역의 대문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 “總統候選人蔡英文首場電視辯論會第一階段申論全文,” <http://iing.tw/posts/462>(검색일: 2016.1.10)

8) 周志豪, “朱立倫：兩岸求同化異 合作雙贏,” 『聯合報』, 2015. 12. 22.

국민당과 민진당의 경합이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 통일과 독립, 친중국과 반중국의 극한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차이잉원이 대만의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지만 양안관계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기 보다는 마잉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민당은 차이잉원의 대만독립 성향을 표출시켜 안정을 희구하는 중도층의 반감을 유도했으나 노련한 차이 후보가 이에 말려들지 않았다. 세 번째의 특징은 차이잉원의 지도자적 자질과 경력이 타 후보에 비해 돋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리덩후이(李登輝) 집권기부터 시작된 차이의 외교 통상, 대륙위원회, 행정원, 입법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대선 과정에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대만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사실 2012년 대선 직후 마잉주는 자신이 비록 승리했지만 차이잉원이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고 실토한 바 있다. 네 번째의 특징은 역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당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던 미국 요인이 이번에는 민진당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차이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당을 지원해 온 미국이 중립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민진당을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예상했던 대로 차이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다.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분석하면 첫째, 역대 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득표 차이를 기록했다. 즉 이번 대선 투표율이 66.3%에 불과했지만⁹⁾ 차이의 총 득표수는 689만 4744표(득표율 56.12%)로서 총 381만 3365표(득표율 31.04%)를 얻은 주리룬에 비해 무려 308만 표 이상을 앞섰다. 이러한 득표 차이는 주리룬과 제3 후보인 친민당 송추위 후보의 158만 표를 합쳐도 차이잉원에 150만

9) 역대 대선의 투표율은 2000년과 2004년 80%, 2008년 76%, 2012년 74%에 달했다. 2016년 대선의 투표율 저하 요인으로는 주로 국민당 지지자들이 국민당 정부에 대한 실망과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선거라는 판단 때문에 투표를 포기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中國時報』, 2016.1.17.

표 이상 뒤지는 숫자다.¹⁰⁾ 둘째,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매우 다른 지역적 지지 분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역대 선거에서는 예외 없이 타이난(臺南), 가오슝(高雄) 등 남부지역은 민진당, 타이베이(臺北)와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은 국민당지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22개 현, 시 중에서 대륙과 인접한 도서인 진먼(金門), 렐장(連江)현과 대만 동부지역인 화롄시(花蓮), 타이둥(臺東)현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민진당이 국민당을 앞섰다. 이처럼 민진당이 인구밀집 지역이자 국민당 지지기반인 대만 북부지역에서도 국민당을 크게 앞섰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차이 후보의 지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¹⁾ 셋째, 차이잉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대선과 병행 실시된 입법원 총선 결과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2000년 비록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입법원에서 민진당이 다수를 점한 적은 없었다.¹²⁾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민진당이 입법원의 총113명 의석중에서 68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4년전 총선에 비해 28석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국민당은 지난 총선보다 무려 29석이 줄어든 35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당 지지 투표에서도 민진당 44%, 국민당 27%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친민당은 정당 지지도 6.5%에 3명의 의석, 시대역량(時代力量)이 6.1% 정당 지지도에 5명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대역량은 2014년 입법원과 행정원 기습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정당으로서 향후 국민당과 민진당의 중간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이다.¹³⁾

10) “台灣地區領導人選舉結果揭曉,” 『人民日報』, 2016.1.17.

11) <http://b.scorecardresearch.com/p?c1=2&c2=9457284&cv=2.0&cj=1>(검색일: 2016.1.23.)

12) 천수이볜의 총통 당선은 민진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국민당의 내분으로 인한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총통 후보 선정 과정에서 렐장(連戰)에 반기를 든 송추위가 국민당을 탈당하여 친민당(親民黨)을 창당하고 자신이 총통 후보로 나서면서 국민당 지지표가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민진당 정부의 등장 배경과 의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문홍호, “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28권 제3호(2004년 가을), pp. 45-46 참조.

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향후 대만의 정치과정은 민진당, 국민당의 양당정치를 주축으로 친민당과 시대역량 등의 약소 정당이 주요 정책 현안의 결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Ⅲ.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 전망

A. '92공식' 유지와 대만의 정체성 강화

현 단계의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의 부정은 곧 중국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대만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대만의 대다수 유권자들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천수이볜 정부의 부침 과정에서 차이잉원은 대만의 독립문제가 열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험했다. 따라서 차이잉원은 대만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최대한 내재화 하면서 대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향후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양안관련 정책 방향은 그동안 민진당이 마잉주 정부의 대 중국 접촉에 대해 제기했던 문제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차이잉원은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당대당'(黨對黨) 회담이 장기적 비전이나 구체적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잉주의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추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만 대륙위원회주임과 중국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의 회담(2014.6), 주리룬 국민당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회담(2015.5), 마잉주 총통과 시진핑 주석의 싱가포르 회담(2015.11) 등을 민진당의 득세를 억제하고 열세인 국민당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과 국민당의 정략적 야합의 산물로 간주한다.¹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차이잉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의 정치적 자주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이가 2016년 11월 7일 마잉주와 시

보인다. 예를 들어 민진당의 68석은 개헌을 위한 정족수에 3석이 부족한 숫자다.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0117000326-260102/>(검색일: 2016.1.24.)

14) 시진핑 주석은 2016년 신년사에서 “마잉주 선생과의 싱가포르 회견을 통해 6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약수를 실현했으며 이는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이 양안 동포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대만 내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國家主席習近平發表2016年新年賀詞,” 『人民日報』, 2016. 1. 1.

진핑의 싱가포르 회담(馬習會)이 ‘대등’, ‘존엄’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국민당의 주장을 전면 부정한 것처럼 중국과의 접촉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92공식’의 기본인 ‘일중각표’(一中各表)에서 마잉주 정부가 ‘일중’에 지나치게 경사되어 ‘각표’의 의미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난했듯이 하나의 중국의 제약 조건하에서 ‘분치’(分治)의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민진당의 대표적인 대선 구호인 ‘대만을 밝혀라’(點燈臺灣)라는 구호는 대만의 정체성 부각 필요성에 대한 차이 후보의 기본인식을 담고 있다.

한편 차이잉원 정부는 과거 천수이벤 정부처럼 중국지도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당의 당대당 접촉으로 양안관계가 ‘국공화’되었다고 비판했지만 민진당 정부도 중국과의 각종 접촉을 통해 양안의 현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¹⁵⁾ 문제는 중국이 국민당과의 접촉에 공을 들였던 것처럼 민진당을 협상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국은 민진당 정부와의 접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민진당과의 협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⁶⁾ 특히 1985년 샤먼(廈門) 부시장으로 부임해 2002년 10월 쑤장성(浙江省) 대리 성장으로 전근하기까지 17년여를 푸젠성(福建省)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대만 주민의 폭 넓은 지지를 받는 민진당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¹⁷⁾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마잉주와의 회담에서 “대만의 각 당파(黨派), 단체가 ‘92공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희망하며, 모든 당파와 단체들이 과거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를 불문

15) Austin Ramzyjan, “Tsai Ing-wen Elected President of Taiwan, First Woman to Hold Office,” *The New York Times*, JAN. 16, 2016.

16) 중국도 2016년 대만 대선이 민진당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시진핑이 마잉주와의 싱가포르 회담을 서둘렀던 것은 민진당의 집권을 막아보려는 의도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국민당 집권기에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분석은 Austin Ramzy, “Meeting with Taiwan reflects limits of China’s checkbook,” *The New York Times*, November 6, 2015.

17) 문홍호,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36권 제3호(2012년 가을), pp. 50-51.

하고 ‘92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승인하고 그 핵심 의미를 인정하는 한 그들과 교류할 것”¹⁸⁾ 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은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안의 정치적 접촉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B. 양안 경협외 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집권 국민당과 민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의 하나는 양안 경제교류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불공정한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대만경제가 1%의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안 경협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만의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차이잉원 후보는 양안 경협외 관련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는 대선 승리의 주요 원인이다.

차이잉원 후보가 대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양안 경협외 관련 정책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가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처럼 양안 경협외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제’(監督機制)를 설립, 운용할 것이다. 실제로 차이 후보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적 법안으로 ‘양안감독조례’(兩岸監督條例)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양안 경협외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둘째, 양안 경협외 과정의 투명화, 공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협 성과를 특정 계층,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양안 경협외 유용성과 불가피성을 수용하는 전제하에서 국민당 집권기의 불투명, 불공정, 특권화 현상을 개선하고 특히 농업, 어업 등 그동안 양안 경협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한 분야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RCEP 및 TPP 가입, FTA 확대 등을 통

18) “跨越66年時空的歷史性握手,” 『人民日報』, 2015. 11. 9; Austin Ramzyjan, “Taiwan’s New Leader Faces a Weak Economy and China’s Might,” *The New York Times*, JAN. 16, 2016.

해 경제의 다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¹⁹⁾ 또한 2010년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후속 협정인 서비스무역(服貿) 관련 사안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처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대만 청년층의 반국민당 정서를 급격하게 확산시키고 급기야 ‘해바라기 운동’으로 불린 국회, 행정원 점거 농성을 초래했던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²⁰⁾

C. 국제적 활동 영역의 확대

하나의 중국원칙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승인된 1971년 이후 대만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상’(de facto)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염원인 동시에 고민이다. 2008년 이후 마잉주 정부는 천수이볜 정부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국제사회에서 중국과의 소모적인 외교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국제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활로외교’(活路外交)를 표방했다. 이러한 외교노선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현상유지, 경험 확대 등과 함께 마잉주 정부 집권 초기의 중요한 정책기조였다. 그러나 8년 집권 동안 마잉주 정부가 공약했던 실질적인 국제적 역량 강화와 생존 공간 확대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활로외교는 오히려 국민당 정부를 궁지로 모는 요인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국제적 활동 공간의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도 대선기간의

19)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차이잉원은 대 중국 경제의존도 완화를 위해 내수 진작,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남진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차기 국회에 초당적 ‘경제소조’(經濟小組)를 설치하고, 행정원에 ‘TPP 추진본부’를 설립함으로써 경제부문의 대내외 소통을 담당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51222004187-260401>(검색일: 2016.1.16.);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0117000848-260301>(검색일: 2016.1.17)

20) 서비스무역협정은 ‘ECFA’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대만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무역의 40%, 해외투자의 60%가 중국에 집중) 상황에서 대만 청년층의 반국민당 정서를 급격하게 확산시키고 급기야 2014년 3월 국회, 행정원 점거 농성(太陽花運動)을 야기한 원인이다. 따라서 차이잉원으로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난제다.

주장을 관철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은 대만의 정체성 강화 노력과 마찬가지로 ‘제약 속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비정치적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공간을 부단히 요구할 것이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대만의 순수한 국제적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중국이 민진당의 진의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각종 다자경제 협력체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제약을 우회하여 국제사회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대만간의 안보, 경제, 민간 부문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사실 2012년 대선과 반대로 차이잉원은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는 대만 내의 지지를 확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²¹⁾ 차이잉원의 당선 직후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만이 건전한 민주제도의 역량을 잘 보여주었으며 향후 미국은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 (unofficial relationship)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²²⁾ 물론 차이잉

21) 대만 대선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미국의 선호도가 대만 여론에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역대 대만 대선에서 국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이는 국민당을 특별히 선호해서라기보다는 대만해협의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민진당의 집권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미국은 마잉주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미국은 민진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잉원 후보가 과거의 민진당 후보들과 다르다. 국민당 후보는 친미, 현상유지를 원하는 반면 민진당 후보는 반미, 독립을 추구한다는 기준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차이 후보는 미국에서 유학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천수이볜처럼 무턱대고 대만독립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둘째, 차이 후보의 지지도가 월등하게 높아서 국민당 후보가 이를 추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미국은 선불리 국민당 후보를 지지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셋째,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통한 양안의 현상유지 차원에서 대만의 독립 주장 세력을 멀리해왔으나 최근 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문제 전반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분규 등 중국의 대외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를 활용하고자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 속에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유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문홍호,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의 선택,” 『국민일보』, 2015. 11. 23 참조.

원 정부의 대 미국 관계강화는 중국의 반발에 따른 역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며 미국 또한 대만의 접근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차이 정부와 미국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양안의 평화적 현상유지라는 대전제와 비관방, 비공식적 관계의 틀 속에서 쌍방의 전략적 협력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중미관계의 갈등과 협력 양상에 따라 대만문제가 민감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IV. 결 론

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관계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양안의 정치적 관계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92공식’을 수용하면서도 대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양안관계의 철칙인 ‘하나의 중국’원칙의 전면 부정은 곧 ‘대만독립’(臺獨)을 의미하며 중국은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이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최대한 내면화 하면서 대륙과 구별되는 대만의 존재를 인정받는 데 주력할 것이다. 차이가 대선 구호로 내걸었던 ‘대만을 밝혀라’라는 구호는 점점 희미해지는 대만의 존재와 존엄을 살려야 한다는 대만인들의 외침을 대변한 것이다. 물론 차이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적 접촉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양안관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진핑도 민진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일중’과 ‘각표’의 상대적 비중과 의미의 해석을 둘러싼 파상적인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차이 정부는 양안경협에 대한 규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침체하게 대립했던 쟁점의 하나는 경협 과정의 불투명성과 성과의 편중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대만경제의 침체국면에서

22) “On Taiwan’s Election,” (Press Statement), <http://www.state.gov/r/pa/prs/ps/2016/01/251328.htm>(검색일: 2016.1.17)

양안경협이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결국 국민당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차이잉원 정부는 양안 경협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여 양안 경협 과정의 투명화와 함께 경협 성과를 특정 조직,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대만경제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의 다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 이외에 차이잉원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양안관계, 중·미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대만문제의 고유한 특징은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협력보다는 견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용 활주로 건설 등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양안의 긴장수준을 적절히 높여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다르다. 물론 차이잉원 정부의 대미관계 강화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미국도 대만의 접근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 중국 견제 필요성이 점증할수록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50년의 식민통치 경험과 대만인들의 독특한 친일 정서에 기대어 개입 기회를 엿보는 일본이 미국의 전략에 편승할 경우 대만문제의 민감성이 증폭될 것이다.

결국 차이잉원 집권기의 양안관계는 미국등 대외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고 마찰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각자의 전략적 한계와 국익의 소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양안교류의 단절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는 민진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양안관계가 실현불가능한 통일과 독립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상생(相生)과

공영(共榮)의 길을 선택할 것임을 예고한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양안의 집요한 기싸움과 그 틈새를 파고드는 미국의 이중전략은 지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흥호, “중국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36권 제3호(2012년 가을), pp. 50-51.
- 문흥호, “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新亞細亞』, 제15권 2호(2008년 여름), pp. 106-107.
- 문흥호, “2004년 대만의 총통 선거와 양안관계,” 『中蘇研究』, 제28권 제3호(2004년 가을), pp. 45-46
- 문흥호,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의 선택,” 『국민일보』, 2015. 11. 23.
- 蔡浩祥, 管務媛, “蔡英文：有溝通，不挑釁，沒意外 3原則維持兩岸關係穩定,” 『中國時報』, 2015. 12. 22.
- 鄭煒, “蔡英文：朱立倫提兩岸同屬一中 引發譁然,” 『聯合報』, 2015. 12. 27.
- 楊湘鈞, 林克倫, “兩岸政策/學者觀點：從經濟角度 探未來走向,” 『聯合報』, 2015. 12. 27.
- “總統候選人蔡英文首場電視辯論會第一階段申論全文,” <http://iing.tw/posts/462>(검색일: 2016.1.10)
- 周志豪, “朱立倫：兩岸求同化異 合作雙贏,” 『聯合報』, 2015. 12. 22.
- <http://onetaiwan.tumblr.com/post/134261819926//兩岸政策篇>(검색일: 2016.1.9.)
- <http://udn.com/ews/story/1/1404320> (검색일: 2016.1.10.)
- <http://onetaiwan.tumblr.com/post/134261819926/兩岸政策篇>(검색일: 2016.1.9.)
-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0117000326-260102/>(검색일: 2016.1.24.)
- “台灣地區領導人選舉結果揭曉,” 『人民日報』, 2016.1.17
- “國家主席習近平發表2016年新年賀詞,” 『人民日報』, 2016. 1. 1.

Austin Ramzyjan, “Tsai Ing-wen Elected President of Taiwan, First Woman to Hold Office,” *The New York Times*, JAN. 16, 2016.

Austin Ramzyjan, “Meeting with Taiwan reflects limits of China’s checkbook,” *The New York Times*, November 6, 2015.

Austin Ramzyjan, “Taiwan’s New Leader Faces a Weak Economy and China’s Might,” *The New York Times*, JAN. 16, 2016.

“跨越66年時空的歷史性握手,” 『人民日報』, 2015. 11. 9;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51222004187-260401>(검색일: 2016.1.16);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60117000848-260301>(검색일: 2016.1.17)

“On Taiwan’s Election,” (Press Statement), <http://www.state.gov/r/pa/prs/ps/2016/01/251328.htm>(검색일: 2016.1.17.)

<Abstract>

The return to power of DPP and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Moon, Heungho

The return of DPP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led to inevitable changes in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First of all, even though Tsai Ing-wen reluctantly recognized '92 Consensus', she will still attempt to reinforce the identity of Taiwan in political relations. It is to internalize their desire to obtain independence from China and bring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Taiwan. Nonetheless, Tsai leadership will not rule out various political contacts with China and Xi Jinping, with more generous view, will as well acknowledge Taiwan as its partner. Competition for the leading position regarding different status on 'one China'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is, however, unavoidable.

Tsai leadership is expected to pursuit 'risk management' of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f '2016 presidential election' turns out to be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unequal distribution in economic cooperation, Tsai leadership will strive to eradicate monopolization of markets by a few major companies through imposing sanctions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in general. Tsai leadership will also diversify economic policies and emphasize strengthening its status in global market to reduce its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Aside from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aiwanese foreign policy is another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s cross-trait relations. The U.S.'s strategic judgment on Taiwan issue has been recently changed

as the U.S. perceived China as a competitor rather than a cooperator. Given the circumstance where China implements ‘maritime hegemony’, the U.S. will strategically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aiwan so as to raise cross-strait tensions to a proper level. Thus, the strategic value of Taiwan under the U.S.’s ‘grand strategy’ is to increase. The cross-strait relations will accordingly face frequent conflicts associated with foreign factors (such as the U.S.) ever since Tsai came to power. However, China and Taiwan sympathize with the fact that the military tension in Taiwanese Strait and severance of cross-strait relations are against their interests. Hence, despite the return to power of DPP, China and Taiwan will aim for cross-strait relations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rather than cling to implausible unification or independence.

Key Words: Taiwan, Presidential election , Tsai Ing-wen, DPP’s return to power, The Cross-strait Relation

[논문투고일: 2016. 01. 10]

[심사의뢰일: 2016. 01. 15]

[게재확정일: 2016. 02. 05]